‘SMART’ 조계사 선재어린이집, 세계가 주목한다

우즈벡 국제대 유아교육과 학장 선재어린이집 ‘ICT시스템’ 참관

아이 스스로 신장 체중 재보고
오늘 기분 체크… 모두 DB축적
발달 과정 수치화로 부모 신뢰↑
서울시 유일 ‘스마트 어린이집’
“조계사 주지스님 지원에 가능”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조계사 선재어린이집에 다니는 A군은 등원하자마자 스마트TV에 띠워진 자신의 사진을 터치해 출석을 확인한다. 그리고 스스로 오늘 기분을 체크한다. 오늘은 등원하기 전 동생과 싸워 엄마에게 꾸지람을 들어 기분이 영 좋지 않다. 그래서 ‘화나요’아이콘을 터치했다.

#조계사 선재어린이집 교사 B씨는 스마트TV와 연동된 플랫폼을 통해 원아의 생활 데이터를 확인했다. ‘아, 오늘은 A군이 기분이 좋지 않구나. 각별히 신경을 써야겠네’라는 생각을 하며 아이를 돌봤다.

아이가 스마트에듀플랫폼을 통해 스스로 자기의 기분을 체크하고, 이를 교사가 확인해 케어하는 ‘스마트’한 광경은 미래 사회의 상상이 아니라 현재 조계사 선재어린이집에서 이뤄지고 있는 일상이다.

조계사 선재어린이집(원장 우정순)은 지난해 10월부터 스마트 보육 시스템을 도입해 운영 중이다. 이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 추진했던 스마트 시티 혁신성장동력 프로젝트 ‘스마트 어린이집 모델 개발 및 실증’ 연구결과를 적용하는 것으로 서울시에서는 조계사 선재어린이집이 유일한 ‘스마트 어린이집’이다.

현재 조계사에는 ㈜아이좋아의 에듀케어플랫폼 ‘트레져맵’을 바탕으로 한 ‘굿데이(생활데이터 분석)’ ‘아띠맵(또래관계 데이터 수집, 분석)’ 등과 비전21테크에서 개발한 ‘키잼 키오스크(스마트 성장 측정)’ 등을 도입 · 운영 중에 있다.

이 같은 스마트 플랫폼을 활용한 K-유아교육은 해외에서도 관심이 높다. 4월 4일에는 이인화 우즈베키스탄 국제대학 유아교육과 학장이 조계사 선재어린이집을 찾아 해당 시스템들을 참관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우정순 선재어린이집 원장, 민선옥 ㈜아이좋아 대표, 권경숙 성신여대 유아교육과 교수 등이 함께 했다.


우즈베키스탄 국제대학 조계사 선재어린이집 스마트 보육 모델 운영 참관 행사에서 시연을 담당한 김민주 원아가 키오스크에 얼굴 인식을 하고 있다.

이날 참관행사에는 조계사 선재어린이집에서 이뤄지고 있는 스마트 보육서비스 전반에 대한 시연이 이뤄졌다. 특히 김민주 원아가 ‘키잼 키오스크’를 활용해 직접 자신이 얼굴을 인식하고 자동 신장 체중계에 올라서 스스로 신체 데이터를 입력하는 모습은 관계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또한, 아띠맵을 통해 생일에 초대하고 싶은 친구를 골라보는 등 또래관계 형성이 어떻게 이뤄지는지를 확인하고 관계도를 파악할 수 있는 것도 눈길을 끌었다.

실제 해당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는 교사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아이들의 상황이 모두 DB화되고 수치화돼 발달 과정을 쉽게 파악하게 됐으며, 보육과 상담이 용이해졌다는 것이다. 또한, 조계사 인근 직장인 학부모들이 학력 수준이 높은 만큼 수치화된 데이터를 보고 선재어린이집의 교육 서비스에 대한 신뢰도 역시 높아졌다.

이슬 조계사 선재어린이집 교사는 “‘굿데이’를 통해서는 아이들이 스스로 감정을 체크하고 자신의 기분과 상태를 친구에게 알려 서로 배려할 수 있는 분위기가 유도됐다”면서 “‘아띠맵’은 아이들의 관계 형성을 파악하는 게 용이해 학부모 상담에 적극 활용됐고, 부모님들의 반응도 좋았다. 교사 역시도 좋아하는 또래 네트워크와 싫어하는 또래 네트워크를 알 수 있어 개별적 지원이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스마트 보육서비스에 대해 이인화 우즈베키스탄 국제대학 유아교육과 학과장은 해외에서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봤다. 이 학과장은 “조계사 선재어린이집 같은 스마트 보육 플랫폼은 해외에서도 유례를 찾아보기 어렵다”면서 “우즈베키스탄은 20년 전 한국과 같이 ‘지식’ 위주로 유아교육이 이뤄지고 있다. ‘놀이’를 중심으로 한 한국식 유아교육을 어떻게 전할지가 관건이지만, 한번 물꼬를 트면 우즈베키스탄에서 충분히 열풍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내용적으로는 업그레이드 할 부분이 있다. 이를 보완하면 코이카(KOICA)를 통해 우즈베키스탄에 스마트 보육 플랫폼을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계사 선재어린이집의 ‘스마트 보육 플랫폼’ 구축은 아직 현재 진행형이다. 터치형 스마트TV를 한 대 더 구입할 계획이며, 아이들이 어린이집 내부에서 자연을 체험할 수 있는 수직정원도 조성하려 한다. 이 같은 다양한 교육 서비스가 가능한 것은 조계사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우정순 조계사 선재어린이집 원장은 “조계사처럼 산하 어린이집에 이 같이 대대적인 지원을 해주는 곳은 찾아보기 어렵다”면서 “주지 지현 스님께서 모든 교육 서비스를 파악하시고,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지원을 해주시고 있다”고 말했다.

80대 노보살들 인재불사로 아름다운 회향

부산연꽃모임 5인, 동국대 건학위에 5100만원 기부

부산에서 신행과 봉사활동을 펼쳤던 보살들이 평생을 아끼며 모은 재산을 인재불사를 위해 회향했다.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건학위원회는 4월 6일 본관 5층 건학위원회 회의실에서 ‘동국대 건학장학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전달식에는 대원성(이정옥) 보살, 대자행(권정원) 보살, 금강월(윤정희) 보살, 진여성(이성림) 보살, 불국화(홍옥자) 보살이 참석했다.

법인에서는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이사장 돈관 스님, 박기련 건학위원회 사무총장, 지정학 법인사무처 사무처장, 학교 측에서는 윤재웅 동국대 총장, 정각원장 진명 스님, 하흥열 대외협력처장, 장환영 학생처장과 동국건학장학생들이 함께 했다.

기부자들은 ‘부산연꽃모임’에서 만난 도반으로 신행과 지역사찰 봉사 등을 50여년 간 펼쳐왔다. 모임 회원들의 고령화로 최근 모임을 회향하면서 조계종에 열암곡 마애부처님 바로모시기 불사와 튀르키예 지진 구호금으로 1100만 원을 기탁하기도 했다.

이번 기부 역시 인재불사로 회향하고 싶다는 의견이 모아져 이뤄졌다. 이들은 자신들이 마련한 49재 장례비용까지 모두 미래 불교 인재 양성을 위해 아낌없이 정재를 내놓아 감동을 전했다.

기부금액이 5100만 원인 이유도 눈길을 끌었다. 본래 기부 동참 불자 1명이 1000만 원을 기부키로 했으나 대원성 보살의 지인이 100만 원을 추가로 기부하며 최종적으로 5100만 원이 전달됐다.

동국대는 학생들에게 전액장학금을 지급하는 학교 대표 장학제도인 ‘동국건학장학’ 장학기금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이사장 돈관 스님은 “평생에 걸쳐 한 푼 한 푼 모아둔 돈을 동국대 학생들에게 기부해주신 보살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린다”면서 “불자들께서 소중하게 주신 작은 마음들이 나비효과처럼 크게 확산돼 우리 사회에 큰 메아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평생 모은 정재, 장학기금 보시
전액 장학제도 ‘건학장학’ 활용

윤재웅 총장은 직접 노보살들의 공덕을 찬탄하는 축사를 직접 써 낭독했다. 윤 총장은 “멀리 부산에서 서울까지 올라와 동국대학교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시겠다는 보살님들의 선행보시의 공덕을 찬탄한다”며 “아름다운 선행 공덕이 민들레 홀씨처럼 세상에 널리 알려져 더 많은 선행 선업의 새로운 씨앗이 되기를 발원한다”고 밝혔다.



행사 관계자들이 전달식 직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정각원장 진명 스님은 “불자로 살아오시면서 기도와 수행, 그리고 회향에 이르기까지 다른 불자들의 귀감이 되는 모습”이라며 “마지막까지 아름다운 신행생활하시고 늘 건강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부자도 회향의 자리를 만들어준 동국대에 감사 인사를 전했다. 대원성 보살은 “작은 마음을 전한 것 뿐인데 큰 행사를 열고 환영해주셔서 감사드린다. 감사와 감동을 넘어 죄송한 마음”이라며 “지난해 40년 간 인연을 맺어온 지정 스님이 입적하시면서 동국대에 장학금을 후원하셨다. 지정 스님의 뜻을 받들어 스님 대신 제가 장학금을 전달하게 됐고, 저 역시 동국대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자 하는 마음을 품고 있었는데, 오늘 이렇게 약속을 지키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대자행 보살은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게 되어 기쁘고, 감사드린다”고 밝혔으며, 금강월 보살은 “부처님께 은혜 갚는 마음으로 기부하게 됐다”고 전했다.

진여성 보살은 “다음 생애 동국대 학생으로 부처님 공부를 이어나가고 싶다. 부처님의 은혜가 동국대에 함께하길 바란다”고 축원했으며 불국화 보살은 “작은 마음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씨를 심는 마음으로 기부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동국건학장학생 1기 대표학생들이 지난 1년 간 활동을 소개하며 노보살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 신성민 기자

광화문, 특정종교 성역 될 수 있는가?

비구니회, 4월 18일 광화문 답사
공공성 회복 촉구 입장문 예정도

특정종교의 광화문광장 성역화로 불교역사뿐 아니라 우리나라 역사가 왜곡되고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는 가운데, 광화문광장에 대한 공공영역 회복을 촉구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조계종 전국비구니회(회장 본각)는 4월 18일 오전 10시 30분부터 광화문광장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공공영역 광화문, 특정종교의 성역이 될 수 있는가?’를 주제로 현장답사 및 특강을 연다.

불교역사제자리찾기본부와 대한불교청년회가 함께하는 이번 시간은 1부 현장답사와 2부 특강으로 나뉘어 실시된다.

1부는 10시 30분부터 광화문광장 일대를 현장답사하는 시간이다. 조계사에서 출발해 종각역사거리, 광화문광장까지 걸으며 일대에 널리 설치된 천주교 성역화 표식을 살펴보는 시간으로 진행된다. 광화문광장은 세종대왕상과 이순신장군상으로서 조선시대부터 현대까지 역사 정치의 정통성이 지켜진 공간이다. 현장답사는 특정종교의 성역화 표시 설치물을 세우는 것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2부는 12시 40분부터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다. 홍선기 교수 등 이 특강에 나선다. 질의응답 토론 후에는 ‘광화문광장의 역사성과 공공영역 회복을 촉구하는 전국비구니회의 입장문’이 발표될 예정이다.

전국비구니회장 본각 스님은 “광화문광장은 공공영역의 특성이 어느 곳보다 크고 상징적인 곳”이라면서 “이번 자리는 광화문광장에 특정종교의 성역화 표시 설치물이 세워진 것이 과연 합당하고 합법적인 일인가를 검토하고, 바른 역사를 지키고 세우는 실천과 지혜를 모으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동국대, ‘무형문화재 전수’ 지원 학교 선정

문화재청 4월 4일 지정 발표…불화장 육성 3년 지원

조계종립 동국대(총장 윤재웅)가 무형문화재 불화장 육성을 위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학교’ 운영 지원 학교로 선정됐다.

문화재청(청장 최응천)은 “젊고 우수한 무형문화재 전승자를 양성하고, 무형유산 전승을 활성화하기 위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학교 운영 지원 대상으로 불화장 종목의 동국대와 진주검무 종목의 경상국립대를 선정했다”고 4월 4일 밝혔다.

무형문화재 전수교육학교 운영 지원 사업은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을 실시하려는 학교를 대상으로 심의를 거쳐 전수교육학교로 선정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전수교육학교에서 전수교육을 수료하면 국가무형문화재 이수심사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는다.

전수교육학교 중 대학은 국가무형문화재 1개 종목에 대해 3개 학년에 걸쳐 총 21학점 이상을 이수할 수 있도록 전수교육과정을 편성해야 하며, 무형유산과 관련한 풍부한 경험과 우수한 기량을 갖춘 전수교육종목 전승자 교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학교에게 문화재청은 총 3년간의 지원 기간 동안 전승자 교원 인건비, 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전수장학금 등 전수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1년 단위로 지원한다. 올해 신규로 선정된 동국대와 경상국립대는 전수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학교당 연 6000만 원의 국고보조금 지원이 이뤄진다.



이번 선정으로 △경상국립대(진주검무) △동국대(불화장) △충북대(한지장) △한국전통문화대학교(단청장, 목조각장, 제와장, 한산모시짜기)의 4개교(7종목)가 됐다.

문화재청은 “변화하는 무형문화재 전승체계에 빠르게 대응하고, 미래 세대에게 전통문화에 대한 진입 경로를 제공하기 위해 새로운 전승체계의 우수사례를 꾸준히 개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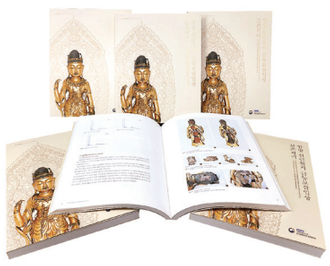
‘선림원지 금동보살입상’ 보존처리 과정 담다

국립문화재硏, 보존처리 책자 발간

지난 2015년 10월 양양 선림원지 발굴장에서 통일신라 추정 금동보살입상이 출토됐다. 오랜 시간 땅에 묻혀 있던 만큼 금동보살입상 표면에는 흙과 청동녹이 뒤엉켜 붙어 있었고, 오른쪽 발목은 부러져 대좌(臺座)와 분리돼 있었다. 광배는 여러 조각으로 파손되어 긴급한 보존처리가 필요한 상태였다.

이에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원 문화재보존과학센터는 발굴기관인 발굴조사를 수행한 (재)한빛문화재연구원으로부터 금동보살입상을 긴급 인수해 보존처리 작업에 들어갔다. 이후 센터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 간 보존처리를 시행해 성공적으로 완료했다.

국립문화재연구원 문화재보존과학센터는 이 같은 양양 선림원지 금동보살입상의 보존처리 과정과 성과를 담아낸 〈양양 선림원지 금동보살입상 보존처리〉를 최근 발간했다.



책자는 금동보살입상의 출토 당시 현황과 미술사적 의의를 비롯해 성분분석, 방사선 비파괴 조사와 과학적 보존처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구결과를 수록했다. 또한 3차원 입력(3D 스캐닝)과 X선 컴퓨터단층촬영(CT) 자료를 융합한 가상의 디지털 복원 결과도 담겼다. 책자 원문은 누구나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문화재청 누리집(www.cha.go.kr)과 국립문화재연구원 문화유산 지식e음(portal.nrich.go.kr)에 공개된다. 신성민 기자

태극권 최고수, 서울 조계사에 뜬다

조계사, 4월 21일 ‘진병 노사’ 초청 국제 세미나

서울 종로 조계사(주지 지현)가 4월 21일 오후 4시 조계사 특설무대에서 ‘진병 노사 초청 태극권 국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태극권에 담긴 수행 문화를 전달하고, 한 · 중 우호의 시간을 마련하기 위해 열린다. 참가비는 무료이다.

한국진씨태극권협회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진병 노사가 태극권과 건강을 주제로 강연하며 태극권 시연이 이어진다. 진병 노사는 중국 진씨태극권 제12대 적종전인으로 중국 국가 1급 권사이다. 현재 진가구 국제태극원장이며 진가구태극권협회장, 초작시 태극권협회 부회장 및 법인대표다.

진병 노사의 특강에 이어 태극권 대련인 추수가 진행된다. 태극권 추수는 진병노사와 제자 이우현 진병태극원 원장이 시연을 보인다. 이우현 원장은 진병노사의 정식입문제자로, 2001년 3월부터 2005년 3월까지 태극권의 발원지인 중국 하남성 진가구에서 유학했다. 2003년 대한 한의사 진식태극권학회 교련을 역임했으며 2004년 중국 하남성 초작시 초 · 중 · 고 체육교사를 상대로 태극권을 지도했다.

추수에 이어 청암사 김천 청암사승가대학의 스님들이 참가해 태극권, 태극선, 태극검을 시연할 예정이며, 세계진소왕태극권총회 서울분회 시연도 이어진다.

이 원장은 “이번 진병 노사의 한국 방문이 코로나 상황으로 중단된 한중 무술의 활발한 교류와 민간차원의 한중 우호교류협력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010)3589-1202 하성미 부산주재기자